

논문접수일 : 2013.03.19

심사일 : 2013.04.04

게재확정일 : 2013.04.26

이상 시에 나타난 큐비즘의 특성과 현대 디자인의 상관성

-건축무한육면각체 중 <AU MAGASIN DE NOUVEAUTES>를

중심으로-

Correlation between Cubism in Yi Sang's Poems and Modern Design

-Focusing on <AU MAGASIN DE NOUVEAUTES> of Yi Sang's Poem "Architecture Infinite Cube"-

주저자 : 이고은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시각디자인과 강사

Lee Go-eun

Chung-Ang University

교신저자 : 김준교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시각디자인과 교수

Kim Jun-kyo

Chung-Ang University

* 이 논문은 2013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지원금으로 연구되었습니다.

1. 서론

- 1.1. 연구목적
- 1.2. 연구방법 및 범위

2. 이상 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

- 2.1. 시대적 배경과 인격형성
- 2.2. 이상 문학의 선 연구 고찰

3. 큐비즘의 이론적 고찰

- 3.1. 큐비즘의 이해와 특성
- 3.2. 현대 디자인에서 큐비즘의 의의

4. 이상 시와 큐비즘의 상관성

- 4.1. 'AU MAGASIN DE NOUVEAUTES'의 텍스트 해석
- 4.2. 'AU MAGASIN DE NOUVEAUTES'에 나타난 큐비즘의 특성

5. 결론

참고문헌

논문요약

디자인의 시각에서 이사의 텍스트를 분석함으로써 그 안에서 시각표현의 다양성을 찾고 난해하다는 이유로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시 텍스트를 새롭게 재인식함으로써 인해 열린 텍스트로서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기존의 이상문학의 활발한 연구 속에서 창조적 상상력을 중요시 하는 디자인 분야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텍스트란 문자언어를 하나의 이미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바 다양한 이미지 표현으로 수용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현대 디자인의 중요한 기능과 상관성이 크다.

이상 문학의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 그만의 독자적인 글쓰기 양식을 이해하고 큐비즘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특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상의 시에서 상관성을 찾을 수 있었다. 현대 디자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큐비즘적 사고의 전환을 찾을 수 있는 이상의 시 건축무한육면각체 중 'AU MAGASIN DE NOUVEAUTES'를 통해서 텍스트 속에 내재되어 있는 디자인적 사고를 유추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은 텍스트와 시각표현이 상호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공존하며, 텍스트의 해석을 통해 텍스트가 내포하는 다양한 기호와

상징의 의미를 새롭게 도출함으로써 폭넓은 사고의 확장과 문학과 미술을 넘나드는 사고의 유연성을 갖고자 함이다.

주제어: 이상, 큐비즘, 건축무한육면각체

Abstract

An analysis of Yi Sang's texts from the perspective of design enables it to find the diversity of visual expression in the texts and have a new understanding of his abstruse poetic texts that look to be difficult and complex, which will in turn excite the imagination of readers. This attempt is a task to be accomplished in design field emphasizing creative imagination. Texts function as the image of a written language and thus i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critical function of the modern design that stimulates the emotion of recipients.

I could find a correlation in Yi Sang's poem during an attempt to understand his unique writing mode on the basis of an overall understanding of his literature and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his literature through a theoretical study on Cubism. I analogized the designical thoughts inherent in the texts on the basis of "AU MAGASIN DE NOUVEAUTES" in Yi Sang's poem of "Architecture Infinite Cube" in which a shift of cubism that has greatly influenced the modern desig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oexistence of texts and visual expression in an interdependent relationship and draw the meaning of a wide range of symbols and signs connoted in texts through an analysis of his texts in order to broaden my thoughts and have flexible thoughts crossing over between literature and art.

Keyword : Yi Sang, cubism, Architecture infinite cube

1. 서론

1.1 연구목적

이 논문은 디자인의 관점에서 이상의 텍스트에 나타나는 시각표현의 다양성을 재인식함으로써 작가와 독자 사이의 상호교환이 가능한 열린 텍스트로서 이상 문학을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대 디자인의 특징은 열린 사고와 감성으로 상호 유기적인 대상을 파악하며 눈에 보이는 대상의 분석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체와 대상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상의 텍스트는 난해하다는 이유로 다양한 해석을 낳으며 변화하고 발전하는 열린 텍스트로서 독자에게 다가간다.

텍스트와 이미지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 공존하며 시각적인 이미지 도출과 디자인의 관점에서 이상의 시를 재해석 하는 것은 이미 시대의 흐름 속에 이어지고 있다. 이를 표면화 하여 분석함으로써 시각표현의 다양성과 텍스트가 내포하는 다양한 기호와 상징의 의미를 새롭게 도출함으로써 폭넓은 사고의 확장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의의이다.

현대 디자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큐비즘적 사고의 전환을 찾을 수 있는 <건축무한육면각체> 중 'AU MAGASIN DE NOUVEAUTES'를 통해 이러한 연구 목적에 다가가고자 한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이상 문학의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 1930년대 일제 식민지 치하의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상황을 통해 이상의 인격형성과정을 살펴본다. 이는 문학이란 시대적 문화적 산물이기에 시대적 상황 속에 고뇌하는 작가의 문학정신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이상 문학의 연구는 다양한 각도에서 활발히 이루어진바 국내 이상관련 서적과 논문 등을 통해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본다.

디자인적 관점에서 이상 시의 텍스트를 분석하기 위해 현대 디자인의 흐름에 영향을 준 큐비즘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이상 시의 텍스트 속에서 도출한다.

일본 식민지의 암담한 현실 속에서 한국 현대 문학의 진수를 보여준 이상의 작품 중에서 기존 시의 형식에서 벗어나 그만의 독특한 시세계를

보여준 <건축무한육면각체>의 7편의 시중 첫 번째 시인 'AU MAGASIN DE NOUVEAUTES'를 통해 이상의 시가 비단 문학적 텍스트에 머물지 않으며 시각적 텍스트로서의 무한한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재인식하고자한다.

이상 문학은 현재까지 5차례나 전집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편자에 따라 이상 연구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논문은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권영민(이상전집 1, 뿔, 2009)의 원문텍스트를 바탕으로 한다. 이는 일문시와 한자가 많은 이상 시를 한글세대의 독자에 맞게 현재 맞춤법 규정에 근거하여 수록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둔 것이다.

1930년대 도시생활의 면모가 사회의 물질주의적 가치관의 팽배에 산물인 백화점의 풍경을 묘사한 'AU MAGASIN DE NOUVEAUTES' 녹아 있으며, 이 시의 시각적 텍스트로서의 가능성을 재인식함으로써 열린 텍스트로 독자와의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유도하고자 한다. 현대인의 고독과 물질문명의 과도한 성장으로 인한 인간성 상실은 동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과거를 통한 현재를 바라볼 수 있는 계기이며 이를 이상 시의 텍스트를 통해 찾고자 한다.

2. 이상 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

2.1. 시대적 배경과 인격형성

현대의 과학기술과 문명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는 동안 획기적인 발달과 변화를 겪었다. 세기말을 거치면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이 등장하여 심리학의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가져왔다. 예술분야에서는 표현주의 이후 입체파가 등장하고, 문학의 경우 의식의 흐름이라는 새로운 기법을 활용하는 심리주의적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상은 이러한 과학문명과 예술의 전환기적 상황을 깊이 있게 관찰하면서 그 자신의 문학세계를 새롭게 구축했던 것이다.(권영민, 2012)

근대화라는 새로운 물질 안에서의 희망과 식민지 치하라는 암울한 현실 아래 참혹한 고독과 불안은 이상 문학의 기저로 다양한 색채와 언어로 표현되었다. 불안한 현실의 부정과 급변하는 사회 속으로의 편입은 이상 문학 속에 현학적 언

어로 재탄생되어지고, 식민치하의 조선에서 개인이 느끼는 역사적 자각은 현대 서구문화의 수용 안에서 문학적 텍스트를 넘어 시각적 텍스트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근대는 물리적이든 심리적이든 근대적 개인과 사회는 감각과 사유 안에서 균열과 외상을 지닐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식민지 도시발달은 일본 제국이라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 촉발되고 기획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당시 이상의 도시 체험은 심리적 영역에서 충격으로 자리 한다. 한국 근대문학은 이러한 근대인의 내면, 즉 식민지적 경험과 근대화의 욕망 사이에서 벌어지는 무의식적 균열들을 미학적으로 주체화하기 시작한다. 특히 근대 초기 1930년대 문학은 근대가 가져온 감각의 이중성과 외상적 충격을 미학적 체험으로 변환하는 일에 몰두한다. 그것은 일종의 근대 현실에 대한 미작 근대성의 개발로서 근대를 사유하고 성찰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신진숙, 2012)

이상의 본명은 김해경으로 한일합방이 선포된 직후인 1910년 음력 8월 20일 경성부 북부 순화방 반정동에서 아버지 김연창과 어머니 박세창 사이 2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1937년 음력 3월7일 동경제대 부속병원에서 생을 마감했다.1) 집안의 어려운 사정으로 당시 자식이 없던 큰아버지에게 입양되어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 속에 성장하게 된다. 미술에 타고난 재능을 보였으나 큰아버지의 강압에 의해 미술학교로의 진학이 좌절되고 경성고등학교에서 건축학과 기하학을 배우게 되면서 상당한 재능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건축과 수학에 대한 지식이 그가 발표한 시를 통하여 발현하게 된다. 근대의 사회적 영향으로 신지식을 흡수한 이상은 엘리트였지만 식민지 치하 속에서 가난한 부모를 떠나 큰집에서 양자로서의 삶에서 형성된 심리적 영향은 그의 문학 전반에 깔리게 된다.

이상이 1930년부터 1937년까지 남긴 시 100여편, 소설 16편, 수필, 평론, 잡문 등 50여편을 합하여 약 180여 편의 작품들 어디를 살펴봐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대부분 작위적 언어놀이를 통하여 현란하고 현학적인 방식으로 제시되어

1) 권영민 편(이상전집1, 뿔 2009, 389-401)이상의 생애에 대한 설명을 참조할 것.

있는 내면의 착잡한 풍경뿐이다.(김홍중, 2005)

가족에게 버려진 고독감, 가난에 대한 열등감, 회복 불가능한 폐병과 암울한 시대적 상황이 맞물려 28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한 이상의 작품은 한국 현대문학 100년사에 다양한 해석을 낳으며 열린 텍스트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이것이 이상 문학의 진정한 가치이다.

2.2. 이상 문학의 선 연구 고찰

이상은 1931년 <조선과 건축>에 일문시 '이상한 가역반응'을 발표(소설은 1930년 2월-12월<조선>에 장편소설 '12월2일' 연재)하면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으니 6년 정도가 활동시기의 전부이다.(정끝별, 2009) 그의 텍스트에 대한 연구 목록은 일일이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한국 문학사에 가장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방대한 연구사를 축적하였다. 그의 텍스트는 200여 편이 넘는 연구 논문과 본격적인 전집 기획만 총 5회2)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국 현대 문학 100년 사이 거의 모든 연구방법론이 집결되어 있는 문학 연구사의 산실이었다고 평가할 만하다.(함돈균, 2010)

이상 문학의 기존의 연구3)는 다양한 접근 방식에 의해 시도되었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표1]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이상 문학의 기존 연구방법	
1	이상의 전기적 사실을 근거로 한 작가론, 작품론을 중심으로 그의 실제의 삶과 작품을 해석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2	정신적 방법에 의한 문학 연구로 모더니즘 문학의 작가심리나 자의식을 해명하는데 기여하였다
3	텍스트의 내재적 분석을 통한 형식주의 및 구조주의적 연구방법으로 이상 문학의 특성을 밝히는데 주력하였다
4	미학적 연구방법으로 실존주의, 건축이나 기하학, 시간과 공간 의식 등의 넓은 의미의 미학적 접근에 의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표 1] 이상의 기존 연구방법4)

위와 같이 이상 연구와 이상 문학 텍스트 연

- 2) 임종국 편 <이상전집>, 태성사, 1956
 이어령 편 <이상 시 전집>, 갑인출판사, 1977
 이승훈 편 <이상 문학 전집>, 문학사상사, 1987
 김주현 편 <이상 문학 전집>, 소명출판, 2005
 권영민 편 <이상 전집>, 뿔, 2009
- 3) 이상 연구 논저는 권영민 편 <이상전집1>, 뿔 2009, 628-664를 참조할 것
- 4) 김교식, 이상문학에 나타난 주체의 내면의식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1-3 참조

구는 다양한 연구 방법론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는 이상의 열린 텍스트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그 가치는 계속 연구 되어질 것이다.

이상 문학의 창조적 상상력은 그의 언어에 대한 탐구로부터 비롯되어 사물을 보는 새로운 시각과 그 인식의 내용에 대한 새로운 명명법을 찾아내며 관습화된 인식을 넘어서고자 한다.(권영민, 2012)

3. 큐비즘의 이론적 고찰

3.1. 큐비즘의 이해와 특성

큐비즘 운동은 모더니즘의 커다란 주류를 이루었던 형식주의적인 조형구조를 이룬다. 서양의 모더니즘 미술은 르네상스 시대부터 19세기 말까지 이미지의 재현적인 표현을 접고 이미지 너머에 있는 본질의 표현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러한 본질표현의 기운은 후기 인상주의에서 시작하나 본격적인 구체적 형태의 사례는 큐비즘에서부터 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모더니즘 이후에 등장되는 모든 미술과 디자인의 표현에서의 형식주의의 경향은 큐비즘의 모형이념이 그 기원이라 할 수 있다.(이춘섭, 2002)

20세기 초 과거의 전통과 사상에서 벗어나려는 새로운 움직임은 문학과 예술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패러다임의 변화로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다.

과학에서는 푸앵카레, 아인슈타인, 하이젠베르크, 보어 등에 의하여 고전 물리학의 한계가 지적되고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근거로 한 새로운 우주관이 성립되고 철학과 심리학에서는 니체와 베르그송의 사상과 프로이트의 무의식의 심리 분석학이 인간 존재에 대한 탈 이성적 해석을 가속화했다. 문학에서는 말라르메, 보들레르, 랭보, 이폴리네르, 프루스트, 토마스만, 건축에서는 그로피우스, 라이트, 가우디, 음악에서는 스트라빈스키, 쇤베르크, 미술에서는 마티스, 피카소, 브라크, 레제, 뒤상, 몬드리안, 보치오니, 말레비치 등의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는 기존의 전통적 유산에 중지부를 찍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였다.(류지석, 2002)

미술에 있어서 큐비즘은 과거 미술의 한계에서 벗어나 기하학적 추상에 의한 순수주의를 지향하고 대상의 본질과 화면의 질서를 시간과 공

간의 조합 속에 탄생시킨다.

작가이자 평론가인 레옹 베르뜨 (1910)는 진정한 예술이란 대상의 외모를 재현하는 것보다 그것들의 법칙을 찾아내는 것을 중요시 하고, 기하학의 형태들만이 이것을 거저 없이 나타낼 있다고 큐비즘의 특성을 설명하였다.

변화무쌍한 자연현상과 사물의 외관을 입방체로 축소, 환원 시키고 이 기초 도형으로의 환원을 통해서 대상의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외양을 그려내던 미술은 대상의 본질과 화면의 질서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큐비즘 이론의 요점이다.(오병욱, 2007)

큐비즘은 과거의 회화가 단일시점에 고정된 공간적인 측면을 구성함으로써 공간이라는 한계성을 넘어서 시간까지도 지배하려는 시도였다. 다시 말하면 연속적인 것과 동시적인 것을 통합하고 시간의 흐름 속에 위치한 종합의 요소들을 철저히 회화적 형태로 제시 하려는 큐비즘의 시도는 공간 중심적인 회화에 운동과 시간을 투영하려는 새로운 오브제의 해석방식이다.(류지석, 2002)

앞서 큐비즘의 태동 배경과 전반적인 이해가 있었다. 이제 큐비즘에 대한 조형적인 면에서의 공통적인 특성을 비환영성, 단순성과 기하성, 환원주의적 추상성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큐비즘의 조형적 특성	
1	비환영성으로 복수 시점 표현의 자의적인 비 사실적 형태와 광원에 충실했다
2	단순성과 기하성으로 사물의 본질 표현을 위한 기하학적인 기하형의 구사와 이의 발전 형태인 절대주의의 감수성에 의한 추상화가 이루어진다
3	환원주의적 추상성으로 궁극적인 본질추구를 위하여 대상물을 해체, 재구성하여 원형의 조각들은 환원의 과정을 거쳐 소멸되고, 원형의 추상 형태만 남게 된다

[표 2] 큐비즘의 조형적 특성 (이춘섭, 2002)

[표2]를 통해 큐비즘의 조형적 특성에 대해서도 살펴봄으로써 큐비즘이 모더니즘 미술에 초석을 이루며 20세기 급변하는 사회 문화 속에 다양한 영역으로서의 상호유기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을 알 수 있었다.

3.2. 현대디자인에서 큐비즘의 의의

현대 디자인은 보이는 대상의 상관성 조형화에서 벗어나 열린 사고와 감성으로 보이지 않는 주체와 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분석을 통하여 수

용자와의 상호보완적인 문화적 교류를 추구한다.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노출되어 있는 현대인들은 이른바 시각 공해에 시달리고 있으며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과학과 산업의 발전에 인간성 상실과 인간소의 현상마저 겪고 있으며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탄생되어지는 모든 것들에 회의감마저 느끼고 있다. 현대인들이 복잡한 시각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의식과 감정의 순수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큐비즘의 연원과 닮아 있음을 발견 할 수 있다.

현대 미술과 디자인은 형식주의의 성취를 위하여 기하학적 접근방식을 그 해결의 요체로 삼으면서 미술과 디자인의 본질표현에 주력하여 왔다. 이러한 본질 주의적이며 근본주의적인 표현 방식의 근간은 표현 방법에 있어서 그때까지의 강력한 전통을 이루었던 환영적 사실주의의 방식을 파기하면서 고전적인 성향과 유희주의적인 표현방식과 결별하였던 큐비즘이 새로운 표현방식의 지평을 제시한데서 시작된다. (이춘섭, 2002)

새로운 표현 방법으로서의 큐비즘은 다양한 유파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며 현대 디자인의 가능성을 타진하게 된다. 큐비즘 계열의 다양한 디자인적 경향의 발로를 정리해 보면 시간과 공간의 연속적인 동시표현을 중시하는 마리네티로 시작되는 미래주의와 인간의 이성에 기초하여 사물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였던 데스틸은 몬드리안을 중심으로 수평·수직으로 이루어진 사각형으로의 환원을 추구하였고, 화면의 기하형태와 단순한 색채로 구성되는 절대주의는 말레비치의 순수기하형태와 색채로 절정에 이르렀으며, 일체의 재현성을 거부하는 순수한 비대상성에 의한 공간형태에 관심을 두는 구성주의 등으로 발전하였다. 큐비즘을 근원으로 한 다양한 미술 양식은 시대적 감수성을 내장한 현대 디자인적 표현과 사상에 밀접하게 연관되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큐비즘과 큐비즘 계열의 조형 표현적 특성은 서로 상호 관련성을 보이면서 그 특성들을 공유하고 일련의 순수 미술계열에서 현대 디자인으로 자연스럽게 흡수되며 발전되어 갔다.(이춘섭, 2002)

현대 디자인에 있어서 큐비즘의 의의는 19세기 말까지 현실적 재현에 머물러 있던 시각을 시

간과 공간의 합을 통해 동시적인 시각으로 사물의 주체와 대상을 해체, 재구성하여 공간이라는 한계성을 넘어서 운동성과 시간의 투영, 즉 다각도의 공간을 동시적인 면으로 표현하여 사물의 본질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열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디자인은 이러한 과거를 통해 현재를 재인식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유연하고 창조적인 사고력과 상상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4. 이상 시와 큐비즘의 상관성

4.1. 'AU MAGASIN DE NOUVEAUTES'의 텍스트 해석

시의 주된 기능 가운데 하나는 인간과 사회적 관계의 여러 양상들이 빚어내는 제반 현상들을 상징의 매개물로 삼아 형이상학적 본질의 세계를 제시해주는 것이다. 다른 문학 장르와 달리 의미와 압축과 상징을 구성의 본질로 삼는 시 장르에서 '난해성'은 어떤 면에서 화피하기 어려운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마광수(1985), 김성수, 2009, 재인용)

이상의 시들은 이상 특유의 문체와 기존의 시법에서 벗어난 파격적인 형식과 기하학, 수학, 물리학이 저변에 깔려있는 현학적인 표현과 자의식이 응집되어 현대문학사에 다양한 해석을 낳으며 기존의 연구에서 새로운 연구 방법으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하며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이상의 시 중 현대 디자인에 많은 영향을 끼친 큐비즘적 특성을 찾을 수 있는 'AU MAGASIN DE NOUVEAUTES'의 텍스트를 살펴보고자 한다. 텍스트의 이해를 위한 해석에 있어서 기존에 이루어진 문학적 텍스트 해석에 기초함을 밝힌다.

AU MAGASIN DE NOUVEAUTES

사각형의내부의사각형의내부의사각형의내부의사각형의 내부의 사각형.

사각이난원운동의사각이난원운동 의 사각 이 난 원.

비누가통과하는혈관의비눗내를투시하는사람.

지구를모형으로만들어진지구의를모형으로만들어진지구.

거세된양말.(그여인의이름은위어즈였다)

빈혈면포.당신의얼굴빛깔도참새다리갑습니다.'

평행사변형대각선방향을추진하는막대한중량.
마르세이유의봄응해람한코티향수가맞이한동양
의가을.

쾌청의하늘에봉유하는Z백호.회충약이라고쓰여
져있었다.

옥상정원. 원후를훑내내고있는마드무아젤.

만곡된직선을직선으로질주하는낙체공식.

시계문자XII에내리위진두개의젓은황혼.

도아의내부의도아의내부의조롱의배부의카나리
아의내부의감살문호의내부의인사.

식당의문간에방금도착한자운과같은봉우가헤어
진다.

검정잉크가엿질러진각설탕이삼륜차에실린다.

명함을짓밟는군용장화. 가구를질구하는조화금
련.

위에서내려오고밑에서올라가고위에서내려오고
밑에서올라간사람은밑에서올라가지아니한위서내
려오지아니한밑에서올라가지아니한위에서내려오
지아니한사람.

저여자의하반은저남자의상반과흡사하다.(나는
애처로운후에애처로워하는나)

사각이난케-스가건기시작한다.(소름끼치는일이
다)

라지에-터의 근방에서승천하는꿈빠이.

바깥은비. 발광어류의군집이동.

(권영민 편, 이상전집 1, 뿔, 2009, 원문의 편집
형식을 그대로 따름)

위의 시는 백화점의 내부공간을 평면 기하학
적인 도형으로 투시해서 풀어낸 작품이다. <AU
DE MAGASIN DE NOUVEAUTES>라는 제목은
<신기한 물건이 있는 상점에서>라고 번역할 수
있다. 이상은 여기서 기하학적으로 분열되고 중
첩되는 백화점의 공간 경험에 대해 쓴다. “사각
형의내부의사각형의내부의사각형 의내부의 사각
형의 내부의 사각형”은 근대 건물의 기하학적 분
할에 대한 ‘나’의 신기한 공간 체험에 대한 감응
이다. 건축학을 전공한 이상의 변별적 의식이 잘
드러나는 시다.(장석주, 2011)

백화점은 현대 소비의 다양함 모습이 투사되
어 있는 공간이며 현대적 특성과 기능이 응집되
어있는 장소이다. 이러한 백화점의 분할 공간적
특성을 이상만의 대상을 바라보는 독특한 시선으

로 풀어가고 있다.

“사각이난원운동의사각이난원운동 의 사각 이
난 원”부분은 백화점 건물의 내부로 통하는 문-
움직임을 공간적(입체적)으로 묘사한 대목이다.
현대 건축의 기본구조 자체를 사각형과 그 사각
형의 원운동의 형태로 놓고 추상화하고 있는 것
이다. 백화점 내부에서도 위층으로 이동하는 통
로용 층계를 놓고 “평행사변형대각선방향을추진
하는막대한중량”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든지, 백화
점에 설치되어있는 승강기를 “사각이난케-스가건
기시작한다”라고 묘사한 것도 모두 기하학적 관
점에서 백화점의 내부구조와 기능을 묘사한 것으
로 보여 진다.(권영민, 2009) 이러한 묘사가 큐비
즘적 특성이 드러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사물
을 기하학적 추상에 의해 순수하게 환원하여 대
상의 본질과 화면의 질서를 시간과 공간의 조합
속에 재탄생 시키고 있다. 백화점 내부의 공간을
기하학적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분할하고 백화점
에 진열되어 있는 다양한 상품과 이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상만의 감각적 언어로 풍자하
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간과 공간
의 조합이라는 이상의 시적 의식과 표현은 현대
디자인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멀티미디어의 확산을 통한 무한 반복
운동을 연상케 한다.

이상은 대상으로서의 사물을 본다는 것이 단
순히 눈앞에 존재하는 사물의 외적 형상을 인지
하는 것이라 여기지 않는다. 그것은 사물을 관찰
하는 과정과 함께 주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속
에서 관찰자로서의 주체까지도 포함하는 여러 개
의 장을 파악하는 일이다. 이상은 사물에 대한
물질적 감각을 파악하기 위해 사물의 전체적인
형태나 중량감, 윤곽, 색채와 그 속성까지도 설명
할 수 있는 특이한 시선과 각도를 찾아낸다. (권
영민, 2012) 이러한 가시적 대상과 사물에 대한
의식과 표현뿐 아니라 비가시적 세계에 대한 인
식과 분석은 현대 디자인에서 요구하는 발상의
전환과 맥을 같이 한다.

사각형의 형태로 되풀이된 백화점 건물과 그
내부 공간과 그 안에 현대 상업적인 생산품이 진
열된 모습, 그것을 사고파는 행위와 각종 광고의
모습들이 사각형의 무한 운동 속에 펼쳐진다.

도시인의 창배한 피부, 마치 안에 피가 비누로

세척된 것 처럼 보이는 모습을 “비누가 통과하는 혈관의 비눗내를 투시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거세된 양말”이나 “빈혈면포”같은 표현들도 백화점 상품들을 생명력이 상실된 인간형상과 관련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품들의 통로를 거쳐 평행사변형으로 오르고 내리는 계단을 통해 옥상정원에 도달한다.(신범순, 2007)

‘AU MAGASIN DE NOUVEAUTES’ 속에 백화점 풍경은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화장품의 향기, 광고문안, 진열장의 화려한 네온사인과 물건들, 화장품과 여성용품, 이층을 오르내리는 슬한 사람들, 빗속을 달리는 자동차, 바쁜 걸음으로 거리를 달리는 여성들, 이러한 현대 도시공간이 시적화자의 냉소적인 태도로 그려진다.

4.2. ‘AU MAGASIN DE NOUVEAUTES’에 나타난 큐비즘의 특성

앞서 3.1에서 큐비즘의 조형적인 면에서의 공통된 특성을 세 가지로 요약한 바 있다. 이러한 특성을 ‘AU MAGASIN DE NOUVEAUTES’에서 찾아봄으로써 현대 디자인에 있어서 사과의 전환에 큰 영향을 미친 큐비즘과 이상 시와의 상관성을 유추하고자 한다.

(1) 비환형성

“거세된 양말”이라는 표현은 여성용 양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자의적인 비 실제적인 형태를 묘사하고 있다. “빈혈면포”에서도 살갓이 얇게 내비치는 여성용 양말을 표현하고 있으며, “참새다리”라는 표현으로 여성의 다리를 실제적 형태가 아닌 자의적인 해석이 보인다.

(2) 단순성과 기하성

큐비즘에선 사물의 본질표현을 위해서 기하학적인 기하형의 구사가 이루어지는데 “사각형의 내부의 사각형의 내부의 사각형의 내부의 사각형의 내부의 사각형”이라는 표현은 백화점 건물 외부와 내부의 공간 분할을 단순화하여 기하학적 형태로 환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사각이 난 원운동의 사각이 난 원운동의 사각이 난 원”과 “평행사변형 대각선 방향을 추진하는 막대한 중량”, “사각이 난 케-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절대주의적 감수성에 의한 추상화 과정이다.

(3) 환원주의적 추상성

다각도의 공간을 동시적인 면으로 표현하여 사물의 본질을 효과적으로 재구성하여 보여주는

과정은 백화점이라는 현대적 도시공간의 모습을 무한히 반복되는 사각형과 원운동으로 환원하여 추상형태를 완성하고 있다.

육면체의 내부를 향한 무한운동으로 시작하는 이 시는 궁극적인 사각형의 결정체가 백화점 세계의 근본적인 논리이다. 그것은 모든 것의 원소이다. 즉, 백화점 건물과 그 안의 공간, 그 안에 놓인 가게들과 그 안에 놓인 상품들 그것을 사고파는 교환법칙들, 그러한 교환법칙에 길들여 있는 직원과 고객들의 생각과 마음속까지 사각형은 박혀 있다. 사각형 건축 구조물의 확산, 그러한 것들끼리의 교통로 확산, 물류의 이동, 사람들의 이동, 그 모든 것들이 포괄적으로 담겨져 있다. 그렇게 무한하게 확산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완결된 모습이 ‘사각이 난 원’이다.(신범순, 2007)

‘AU MAGASIN DE NOUVEAUTES’는 20세기 초에 형성된 서구 근대화의 영향으로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무분별하게 노출된 신문명과 현대사회가 갖고 있는 희망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시대적 아픔 속에 젊은 지식인의 눈에 비친 현대 도시공간의 단편인 백화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상의 눈에 비친 현대 도시공간의 풍경은 자본주의의 착잡한 허상이며, 기하학적 형태로 환원되는 허무한 추상이며, 식민지 치하의 우울한 현대인의 자화상이다.

5. 결론

데리다가 말하듯 글쓰기가 마치 그림처럼 되려고 했던 것은 모더니즘의 시학이다.

이상 시의 텍스트를 통해 시의 문자언어가 수용자에게 다양한 이미지를 선사하며 한 편의 영화 장면처럼 펼쳐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모든 문화의 흐름이 문학, 미술, 음악, 철학 등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회라는 틀 속에서 상호연계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주지하는 바이다.

현대 디자인은 눈부신 산업의 성장과 획기적인 과학의 발전으로 질적 양적 측면에서 거듭 진화하고 있다. 가속화되고 자유로운 정보의 교환으로 이제 수용자(소비자)들은 어떤 상품을 선택하더라도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만족은 동등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호간의 정보교환은 디지털 미디어의 눈부신 성장으로 이어지며 이에 대한

반향으로 수용자들은 다시 아날로그적인 정서와 감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재 디자인의 한 흐름이다.

문학의 텍스트를 다양한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형태로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은 디자인 분야에서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연구가 비단 이상의 시로 시작했지만 문학의 다소 수동적인 수용자와의 교류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글 읽기를 통한 사고의 유연성 확대와 창의력이 수반되는 디자인적 사고를 갖기 위한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 권영민 (2012). 『이상 문학의 비밀 13』. 민음사.
- 권영민 편 (2009). 『이상전집1』. 뿔.
- 김교식 (2004). 「이상 문학에 나타난 주체의 내면의식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홍중 (2005). 한국 모더니티의 풍경, 『사회와 이론』, 7.
- 류지석 (2002). 큐비즘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 연구』, 18(3).
- 신범순 외 (2007). 『이상의 사상과 예술』 신구문화사.
- 신진숙 (2012). 1930년대 모더니즘 시에 나타난 도시체험과 멜랑콜리적주체, 『한국문학논총』, 56.
- 오병욱 (2007). 피카소와 종합적 입체주의, 『대한토목학회지』, 55(4).
- 이춘섭 (2002). 큐비즘의 양식적 특성과 모더니즘 디자인의 상관성, 『디자인연구논집』, 1(1).
- 정끝별 (2009). 이상 시의 상호 텍스트성 연구, 『한국시학연구』, 26.
- 장석주 (2011). 『이상과 모던뽀이들』. 현암사.
- 함동균 (2010). 「이상시의 아이러니와 미적 주체의 윤리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